제12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프/로/그/램 PROGRAM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제12차 열린 포럼	13:30~14:00	접 수	
	14:00~14:20	인사말 및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소개 / 발표자 소개	
	14:20~15:00	주제발표 1.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김 윤 환 서울문화재단 작공간추진단장
	15:00~15:40	주제발표 2.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이 왕 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5:40~16:20	토론 1 토론 2	권 구 형 서울남부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이 원 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16:20~17:00	질의 응답	

제12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Contents

주제 특강	**1.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김윤환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추진단장	1
	2.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3
지정 토론	**토론1.** 권구형 서울남부지청 고용지원센터장 **토론2.**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29
부록	제1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다시보기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적기업>	31

"지역개발과 사회적기업"

Ⅰ

열린포럼 주제 특강 1.

지역개발과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 김 윤 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김 윤 환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추진단 단장

• 주요내용 :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증폭,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문래예술공단 내의 문화사회적기업 가능성을 논의

1. 기존 도시개발의 한계

근대사회부터 진행된 급속한 산업화는 도시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도시인구의 과잉, 자연환경 파괴, 삶의 기반시설 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는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일부지역은 쇠락함으로써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더구나 도시의 기능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된 도시재개발 정책은 해당지역의 과거를 모두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난개발이 성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1970년대 유럽에서는 기존 도시나 건축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시 공간을 재생하는 것이 개발에 의한 신축이나 증축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된다. 즉 물량 위주의 재개발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1]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고 도시생태환경을 보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도시의 재생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정립되었다.

2.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최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은 최근 가장 각광받는 도시재생의 방법론 중 하나로 채택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 지방화와 함께 도시 간 경쟁이 치열

1) 인천발전연구원, 이현식 서동희『인천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미술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2004

해지면서 각 도시들은 스스로의 개성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최막중의 말처럼 다품종, 소량생산소비시대의 문화와 환경은 지역특화발전에 필수적 요소들이므로 모든 지역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 다양한 잣대로 측정되어 모든 지역이 특정 부문에서 서로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생산소비시대에 와서 문화예술은 모든 것의 중심과제가 되었고, 구시가지 역사문화, 포도주나 위스키 등 오래 숙성된 맛, 도시재생 등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꾸준히 변화해온 예술의 사회적 기능도 현재의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예술가들은 그동안 많은 예술실천을 통해 예술의 생산-소통-소비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왔고, 예술이 소수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다수 대중의 것으로 바꿔왔다. 이를 통해 확대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은 예술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었고, 도시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몇 가지 사례를 통한 검토

<사례 1> 창조도시 뉴캐슬-게이츠헤드[2)]

가. 개요

- 영국 북동부, 타인강을 가운데 둔 2개 소도시로 뉴캐슬 인구 26만, 게이츠헤드 19만명
- 영국 산업혁명의 심장역할을 했던 중공업 도시로 제철, 조선, 유리, 피혁, 도자기,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성했음.
- 2차 세계대전과 후기 산업사회의 성장 동력 상실 후 도시는 쇠락, 1980년대까지 한때 실업률 15% 초과

나. 진행 경과

- 1980년대에 들어서서 가든 페스티벌,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와 스포츠를 활용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시행
- 2001년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리지 개통, 2002년 : 발틱현대미술관 개관,

2) 뉴캐슬-게이츠헤드 사례는 김해보, <창조클러스터 국제회의 참가 영국 출장기>, 2006에서 발췌

2003년 세이지음악당 개관 등 타인강변의 문화적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타인강을 중심으로 Newcastle-Gateshead라는 하나의 창조도시로 연결하여 전 세계에 알리게 됨

- 뉴스위크지 선정 (2002.9월) 세계의 창조도시

다. 성과

- 문화적 재생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낙후지역이었던 이곳에 호텔, 레저 클럽, 사무실, 아파트 등 개발 붐 형성됨
- 이 지역 창조산업 분야의 성장
  . 해당 분야 종사자가 4년 전 22,000명에 비해 현재 59,000명으로 증가
  . 이 분야에서 26억파운드의 연매출, 약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연간 167만 명의 관광객 유치
- 시의회와 대학 협력으로 10년간에 걸친 문화적 도시재생의 영향분석 연구, 문화적 지역재생과 지역 정체성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 증명
- 이 지역을 창조도시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주민의 93%가 긍정

라. 성공 요인

- 지역의 문화적 역사와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
- 지역의 문화정책 전문가와 시의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문화거버넌스 구축
- 창조도시로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위한 치장보다는 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우선시

<사례 2>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

가. 개요

-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 구 담배제조 공장 활용한 종합예술사이트, 개관 1992년
- 총 면적 107, 000㎡, 3개의 블록, 섹터1. 35,000㎡(도시산업·문화유적 아카이브), 섹터2. 27,000㎡(멀티미디어 제작, 발표), 섹터3. 45,000㎡(창작, 발표공간)

나. 진행경과

1886년 담배 제조공장
1990년 공장 폐쇄
1991년 연극집단 System Friche Theatre(SFT) 입주
1992년 마르세이유 시가 부지 매입, 일부 시설을 창작공간으로 임대
1995년 세계적인 프랑스건축가 장 누벨 주도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진행
2002년 국제 토론회를 계기로 외무부, 도시국, 설비 및 주거 운송부, 교육부, 청소년 및 스포츠 부, 경제부, 관광국 등의 부처가 함께 협의하여 유휴산업시설의 예술공간화 사업추진
2007년 SFT와 마르세이유 시는 국가, 지역, 도와 합의 문화거버넌스 사회적기업 발족

다. 성과

- 연간 120만 명 이상 손님방문
- 항구 지역의 경제 발전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Euroméditerrannée' 프로젝트의 일부
- 2013년 유럽의 문화예술도시 선정에 기여
- 국내외 예술인 1,000명이 일상적 창작과 발표활동, 60개 이상의 단체 (예술제작자, 기업, 기업 인큐베이터, 서비스 기관, 고용주 조합, 예술 단체, 미디어)입주
- 2007년 현재 일로3에만 평균 연령 35세의 젊은 인력 450명을 고용, 재정사업, 라디오 방송국, 신문 제작자들도 50여명 이상 활동
- 연간 500개 이상의 문화 행사, 3만 시간의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40개국 이상의 국가와 180개의 국제협력프로젝트 진행

라. 성공요인

- 지역에 정착한 소수 예술가들의 노력이 도시재생과 문화활성화의 밑거름
- 시민을 문화생산의 동반자로 정의하면서 아틀리에, 연수, 모임, 창작 등의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예술가와 기획자 등 민간의 주도를 전제로 제도 기관과 행정 당국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이 성공의 열쇠

<사례 3> 칠레 발파라이소 벽화운동 - '열린 하늘아래 있는 박물관'

가. 개요

칠레 제1의 항구도시 발파라이소는 예술프로젝트를 통한 활성화사례다. 발파라이소는 45개의 언덕을 따라 함석지붕 판자벽들이 밀집된 전형적인 해안가 빈민촌이다. 여기에 미술가들은 장기간 벽화운동을 벌여 산동네 미술관을 조성하여 자칫 슬럼화 되기 쉬운 달동네를 문화와 역사교육이 살아있는 예술동네로 바꾸어놓았다.

나. 진행경과

1969년 카톨릭 대학 미대 학생들이 콘셉시온 지역에 벽화를 그리면서 시작된 이 운동은 1990년대에 Nemesio Antunes과 Mario Toral 같은 작가들을 모아 벨라비스타 지역 벽들을 디자인하려는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다. 또 칠레가 내세우는 세계적인 작가 마타가 벽화운동에 참여하여 지역활성화를 도왔다. 미술가들은 산 중턱에 위치한 칠레의 유명시인 네루다의 저택과 공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동네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유도했다. 이에 발맞춰 주민들은 벽화를 지역고유의 문화재산으로 생각하여 잘 관리하고 있다.

다. 성과

- 칠레의 시인 네루다의 저택을 중심으로 달동네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은 벽화들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 달동네의 도시미관 개선 및 공동체회복과 주민교육,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둠

라. 성공요인

- 예술가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이 지역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화합시키는 요인이 됨
-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조

<사례 4> 핀란드 케이블팩토리

가. 개요

-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소재한 노키아 회사의 구 케이블 제조공장
- 1991년 50,000㎡ 규모의 복합예술공간 조성
- 시설은 아틀리에, 스튜디오, 박물관, 교육기관, 운동기관, 음악기관, 인쇄업종, 라디오 방송국, 사무실, 레스토랑, 바 등

나. 진행경과

- 1939년부터 1954년 사이에 3단계에 걸쳐 완공
- 1980년대 말까지 2천여 명이 전기 및 전화선 제조에 근무했으나 재정난으로 공장 폐쇄
- 일부 공간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 1991년 헬싱키 시가 공장 인수 후 약 5천만 유로(약 650억원)의 예산으로 이 공간에 탁아소, 건강 센터 등을 지을 계획 세웠으나 재정난 겪음
- 예술가들이 임대 창작공간조성 제안해 이를 시가 받아들였고, 공장의 보수비용은 임대료와 예술가들의 노동으로 충당함
- 1991년 현재와 같은 현대 예술공간 <케이블 팩토리>로 재탄생

다. 성과

- 공장의 역사성과 장소성의 보존
- 대규모 사업장 폐쇄에 따른 시민의 상실감을 치료
-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 제공 및 고용창출(900명) 효과
- 시의 막대한 예산 절약(5천만 유로, 약 650억 원)
- 예술가 자율적 운영으로 비용 절감

라. 성공요인

-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시의 열린 태도
- 공간조성과 운영에 예술가들이 적극 참여

4. 우리나라의 시도들

서울시는 최근 도시갤러리, 금속문화의 거리 조성, 난지창작스튜디오, 아트팩토리 사업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갤러리는 도시를 작품처럼, 난지창작스튜디오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예술을 꽃피우려는 시도를, 아트팩토리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부족한 창작여건을 제공하고, 서울시민을 예술의 창작-소통-향유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도시를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시행했던 아트인시티와 당인리 문화발전소 추진, 구기무사터 현대미술관 추진, 미술소그룹들의 시도(플라잉시티, 명륜동에서 찾다, 3백만원 프로젝트 등)들은 큰 틀에서 보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실천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여러 지방정부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여서 전국적인 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정책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없다면 매우 공허한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다행히도 서울 문래동에 민간의 자생적인 창작촌이 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래동은 전통적인 준 공업지역으로서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 철강재 판매 1번지'로 활황을 이뤘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심 재개발 사업과 외환위기, 철강 수요처 감소,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등으로 위축되면서 점차 쇠락하고 있는 지역이다.

문래철재상가단지는 동으로는 아파트형 공장단지, 서쪽으로는 소규모 제조업 공장지대, 남으로는 초등학교, 북으로는 대단위주거아파트단지와 연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재래공단과 신흥주택단지의 경관이 너무 달라 생활문화권 단절이 심각하고, 공단지역과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서로 정서적 이질감이 커 지역공동체가 분열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5,6년 전부터 철재상가단지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서 지역은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덧 77개 작업실 약 200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합예술창작촌(이하, 문래예술공단)으로으 변모해가고 있다. 건물의 1층은 대부분 철재상가와 철 가공 공장들로서 낮 동안 영업하고, 밤에는 2,3층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어 이 지역은 낮과 밤을 번갈아가며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문래예술공단의 큰 특징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창작촌을 이뤘다는 점이며 기존 재래산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창작촌이 들어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재래식 철공소의 장인적 분위기가 주는 근대적 감성은

실험적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무대로 삼을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로 비춰졌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문래동 창작촌은 지난 2-3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향후 가속화될 전망이다. 예술가들은 연중 다양한 공연행사와 시각예술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지역사회에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벽화운동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5. 문래예술공단의 현안과제들

문래예술공단의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추진돼온 문래동 재개발 계획은 향후 창작촌의 존립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문래동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율하고 창작촌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즉, 창작촌이 있음으로써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화와 공동체 회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다.

이를 위해 창작촌의 예술인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음, 창작촌의 고부가가치성을 대한 주민홍보, 창작촌의 예술생산물의 질적향상 도모, 국내외 예술교류 활성화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문화거버넌스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가. 문래창작촌 현황

- 경기침체 문화예술 투자위축으로 예술단체 활동 위축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증폭, 고용창출관련 협의체 구성됨
- 개인작가에 비해 공연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음

나. 지원방향

- 민관합동 문화거버넌스 구축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시행 필요
- 참여추천기관 : 서울시, 영등포구청, 서울문화재단과 창작공간추진단, 하자센터, 함께일하는재단, 서울지방노동청 남부고용종합지원센터 등

ㄱ) 연구사업

<프로그램 (예)>

목적 : 영등포구 지역맞춤형 문화예술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구분	세부내용
연구사업	- 영등포지역 문화수요, 공급 실태조사 - 문래예술공단 현황 및 실태조사 - 문래동 환경조형물 업체 조사 및 영업실태조사 - 문화예술관련 고용모델 사례 연구(사회적기업, 예술특구, 해외 사례 등) - 영등포 지역 재래산업과 예술촌 공존방안 마련 - 특화사업 모니터링 - 지역맞춤형 고용모델 제시 - 연구 자료집 발간

ㄴ)지원기관의 역할 제안

- 서울시 : 문래예술공단 내 '예술의 거리조성' 등 창작촌 인프라확충 사업시행으로 예술방면 일거리 창출
- 영등포구청 : 구 축제 등 문화예술 행사에 사회적기업 참가 우대
- 서울문화재단 : 문화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예비 문화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 시행
- 아트팩토리 :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모, 아트팩토리 운영 전문인력 충원에 예술인력은행, 영등포문화충전소 등 사회적기업 적극 활용
- 함께일하는재단 : 예비 문화사회적 기업 컨설팅, 자문, 인큐베이팅 사업 시행,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시행 등
- 서울지방노동청 남부고용종합지원센터 : '문래예술공단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사업'등 지역맞춤형 사업 시행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세부 내용
예술인력 수요공급 체계구축	- 예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예술인력수요처발굴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 새로운 예술인력 수요공급체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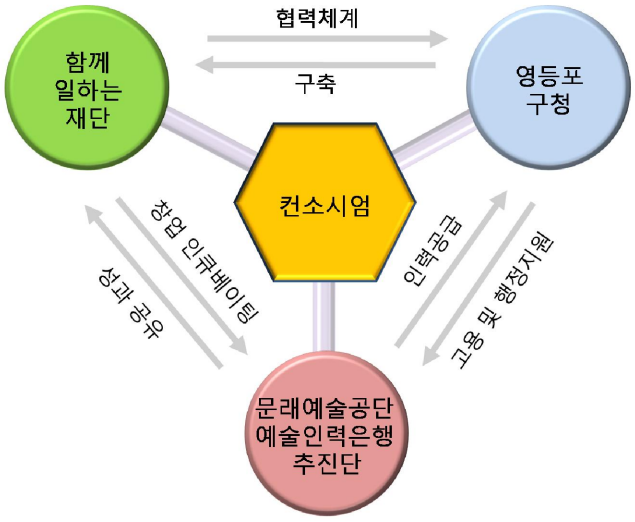
공공 예술학교	환경조형물 과정	- 재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일거리 창출 및 교육 - 철공소, 예술가, 공업고 산학협동방식 - 문래 환경조형물업체 밀집지구
	공공예술	- 도시미관개선, 공동체 활성화 - 예술이론강좌, 워크숍, 현장실습
초등 교사 예술학교		- 지역 내 초등교사 문화예술재교육
예술 기획 학교		- 예술기획자 및 이론가 인력 양성 - 공연연출가 및 안무가 육성
예술 공간 관리 실무자 학교		- 예술 공간 관리 실무자 양성 -예술가, 예술경영학과 졸업생 등
세미나		-문래예술공단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다. 민관 거버넌스 설립으로 체계적 지원

-기존 재개발전략의 방향전환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으로 수립

<거버넌스 구상 (예)>

- 예술인력은행 설립 : 21세기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미학과 로컬의 지역성'을 갖춘 전문예술인들로 뱅크를 구성하여 사회에 필요한 예술인력을 공급하는 은행, 주기능으로는 예술인력 발굴 및 양성, 예술인력 DB 구축, 예술인력 공급 및 고용 모델 개발
- 인접 재래산업과 창작촌의 공존체계 구축 : 오래된 환경조형물 업체 거리를 특화 문화산업단지로 조성 필요(환경조형물업체 단지 조성)
- 문래예술공단 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 발족 되고, 고용창출 확대 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문화생태계를 형성해가는데 문화사회적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



(* 예술과도시연구소의 『문래 창작촌 연구』 2008 등의 자료 참고함.)